

특집: 고 오진곤 전 회장 추모

오진곤 선생님을 추모하며

정광수^{†1}

2016년 봄을 기다리며 한국 과학사 학회에서 오진곤 교수님 추모 특집호를 기획하면서 본인에게도 추모의 글을 의뢰했다. 아마 전북대에 과학학과가 신설된 이후 학과, 연구 센터 진행에 있어 오 선생님과 가장 근거리에서 생활한 이유에서일 것으로 생각한다. 사적인 일보다 직장 동료, 선배 교수님으로 함께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추모의 글을 적어 내려가고 싶다.

오진곤 ‘교수님’ 보다는 오진곤 ‘선생님’ 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나 자신이 학부 시절 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오 선생님의 훈훈한 정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학부 시절 수업 시간에 학부 졸업생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영문 성적표를 작성할 때 선생님이 담당했던 ‘자연 과학 개론’ 과목명을 “philosophy of science” 라고 번역했던 이유를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 본인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학위 논문을 선생님 연구실을 찾아가 드렸던 것이 과학학과 개설 이후 첫 번째 전임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인연이었다. 참 우연치고는 인생에 선생님과과의 좋은 인연의 출발점이 되었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설된 학과를 선생님과 출발하면서 지긋한 나이셨던 선생님께서 학과 대부분의 일을 믿고 맡기셨던 선생님의 신뢰에 학과 후임 교수들을 뽑으면서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싹트게 해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늘 ‘사랑으로’ 라는 노래를 학과 모임에서 불러 주시곤 했었다.

입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입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책자로 사용하기 위한 □ 과학학이란 무엇인가□ (전북대 출판부에서 가출판) 그리고 후에 □ 과학학 개론□ (신아출판사에서 출판)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선생님의 자문 아래 저술하였던 것이

1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생각난다.

학과와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던 ‘과학 문화 연구 센터’ 일에 학문적 · 관리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함께 후배 교수들과 노력하였고 학과 대학원생의 유치 ·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었다. 그렇게 학과 탄생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던 세월이 훌쩍 지나고 선생님은 정년을 맞으셨고 선생님의 대표적 저술의 하나인 『과학사 총설』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되었다.

정년 이후에도 몇 년 동안 학부 교양 과목을 맡아 주셨고 학과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명예롭게 교수 생활을 해주셨다. 본인이 맡을 주례 역할도 늘 주례 대상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대신 서 주셨고 늘 친자식처럼 따뜻함으로 대해 주셨다. 그래서 나의 아내나 자식들도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대하였고 사모님 그리고 선생님 자식, 자부들까지도 식구처럼 지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아쉬운 마음이 드는 여러 가지가 머리를 스친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맘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자식 같은 동료 교수들에게도 미안했음을 표현하셨던 대인 기질, 정이 많으셨던 진짜 그대로 ‘선생님’ 이셨다.

이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지금도 선생님 자택 뒷산에 조부모, 부모님을 이장하는 효심을 보이시고 당신께서도 들어가신 곳에서 주위 꽃들의 만발을 만끽하시면서 매실주 한 잔을 생각하시겠지요. 선생님 박사 학위 지도 교수이신 전상운 선생님께서도 제자가 그리워 이번 주 전주에 오신다고 하네요. 상을 끝내고 연구실에 돌아와 실컷 울고 나니 맘이 가라앉았는데 다시 지금 눈물이 글썽이네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 늘 선생님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 하고 선생님이 밥그릇 여시는 것을 보고 내 밥그릇을 열었던 맘으로 선생님을 기리겠습니다. 이번 추모 특집을 기획해 주신 한국 과학사 학회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원고지 매수는 마음으로 메꾸겠습니다.

2016년 4월 6일